2022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9.27. 15시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6/10	3	-	9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권혁남 위원장, 박찬재부위원장, 문해주 위원, 정의식 위원, 정경모 위원, 김희중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추승호 보도본부장, 문승재 시청자센터장, 한승호 심의실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5	-	-	-	15	-	15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5	-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재난사고 취재 및 보도 가이드라인, 최근 장마비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마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취재 및 보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어쩐 점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여야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보도하지 말아야할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가족, 특히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유가족들의 사생활보호를 유지하면서 어느 선까지 보도하여야 하는 가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명사고 시 유가족의 얼굴 노출, 극도의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 촬영 및 보도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긴급 보도 시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권혁남위원장)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만든 재난재해보도 준칙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10월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만들어 놓은 방송 재난관리 기본계획, 이것을 우리 TV사정에 맞춰서 약간 수정해서 사내 게시판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잘 안되는 경우 발견 즉시 얘기를 통해서 수정하며 관련 부서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22.9월 조치>	‘22.8월
보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고 경제팀에서는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했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경기침체란 복합위기를 만났다”고 전하고 이에 새 정부가 감세와 규제 완화를 처방하고 기업인 사면을 통한 기업가정신 복원 그리고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과 같이 과감하게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등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함. 향후 장기 비전과 관련한 후속기사를 뉴스프라임 등에서 다뤄 정부가 보완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김희중위원)	연합뉴스TV에서 주최하는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포럼 ‘3고’ 복합 위기, 한국경제 돌파구는 주제로 9월23일 각계 정, 재계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그 날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중계하였습니다. <22.9월 조치>	‘22.8월
총 건수		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성,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는 선정적이기 보다는 드라이하게 보도해야, 인하대 성폭력 사건 등 성범죄 보도 시 일부 언론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들을 다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개인적 신상과 사생활 영역이 노출되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한다. 일부 언론은 시청자나 독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언론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끼치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성,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등과 관련된 취재 및 보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취재기자들을 수시로 일깨워주어야 한다. 아울러 데스크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보도는 선정적이거나 흥미위주여서는 안되고, 철저히 드라이하게 보도하도록 하여 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피해자들이 그런 피해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공권력이 어떻게 해야되는가 이런 얘기 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권혁남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대처에 있어서는 국가적 공권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도함에 있어서 선정적인 보도, 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선정적이고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취재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과 데스크들이 그런 부분들 잘 잡아내서 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전세사기 보도 관련> 지난 8월 16일부터 약 1주일간 7차례에 걸쳐 최근 급속한 집값 하락으로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	칭찬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 사회부에서 젊은 기자들이 이슈를 그때그때 선정해서 집중 보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도 그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으며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단순보도에 그치지 않고 전세사기의 주요대상, 전세 사기 유형 등을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보도를 이어감으로써 시청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익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보도였으며 <09.12 [뉴스초점] '뜨거운 감자' 서울 쓰레기 소각장...갈등 해결 방안은> 서울시 새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마포구 상암동) 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커짐에 따라 후보지 선정의 배경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도하여 좋았습니다.(박찬재부위원장)	런 젊은 기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진행형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보도	'아르테미스' 관련 보도를 시청하면서 약간 아쉬웠던 것은 9월 9일 이후 달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대한 추가 보도가 없었다는 점(* '이후 한 차례 더 연기(9.27 발사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실제 보도했는데 인지 못했을 수도 있음) 다누리와 아르테미스의 비행 일정이 크게 다른 점에 대한 비교 설명, 작년에 가입한 '아르테미스 협정'과 최근 추진 중에 있는 아르테미스 발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문해주위원)	아르테미스 관련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관련 보도를 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보도	특정 뉴스 시간에 수어통역을 해주는 것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메인뉴스 시간대에 해주는 것이 좋겠고, 이용 편의를 위해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어통역사의 경우 손이나 얼굴표정이 눈에 잘 띄어야	수어 통역은 평일에 정오 뉴스 그 다음에 오후 6시 뉴스에 두 차례 하고 주말에는 오후 1시 뉴스 한 차례 합니다. 거의 모든 뉴스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확대하는 문제는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하기 때문에 통상 검정색 옷을 입는다고 알고 있는데, 색상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점(치마 검정색, 블라우스 회색)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수어통역사의 표정이 매우 편안하고 밝아 보여 시청하기에 좋았습니다.(문해주위원)	편성표의 일정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편성표를 시청자들이 찾아서 보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하단 스크롤에 수어 통역을 몇 시 몇시 한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도	8/21 맛있는 우리말 임신부, 임산부에 대한 흔히 쓰이는 혼돈스러운 어휘에 대한 설명이 좋아보였습니다. 칩4와 팹4에 대한 설명이 좀더 자세히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8/28~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경찰의 공안직화, 복수직급제를 시행하겠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안직화, 복수직급제가 뭔지, 경찰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저를포함 잘모르는 시청자들에게 그 뜻과 장·단점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정의식위원)	칩4나 팹4 같은 생소할 수 있는 용어 당연히 풀어서 붙여주는 게 친절한 보도겠죠. 단신처리할 때도 간단한 설명을 그 용어 앞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칩4 같은 경우는 단신에서 미국 주도 반도체 글로벌 협력체라고 붙이고, 리포트나 대담의 경우는 칩4 얘기해 주고 간단하게 한 두 줄 설명 붙이는 것이야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공안직, 복수직급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보도	연합뉴스TV 스페셜, 반려견, 반려묘 등 천만시대(1500만이라고도 함)에 맞춰 반려견들에 대한 실상, 유기견에 대한 실태 등 비교적 자세한 보도가 있어서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생명 존중 정신을 통해 사람과 동물들이 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식위원)	반려동물 얘기해 주셨는데 연합뉴스TV 스페셜이든지, 저희 리포트든지, 뉴스 프리즘이든지 반려동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절한 시기에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9/3일 미니다큐 아름다운 사람들, 착한 공부방에 대한 취재 및 보도에서 다문화 학생과 부모들의 한글 교육 program 개발 등을 통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 즉 쉽게 게임을 하듯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가 좋았고, 앞으로는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과정(따돌림은 없는지, 학습과정에서 문제점과 아쉬운 점 등) 등에 대한 취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 한국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들 사이의 간격을 좁혀지는 것같아 좋았고, 또한 과거 학생으로 참여했다가 이젠 선생으로 되물립하는 것을 보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취재 및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정의식위원)				
보도	요즘 태풍이 자주 한반도를 거쳐 가거나 스쳐 지나가는 소식을 접하며, 태풍의 세기를 나타내는 초속이 자주 등장하는데 (가끔 시속으로 표현도 함), 초속은 몸으로 쉽게 체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속 x 3600을 하면서 계산하기도 어렵고, 혹시 초속 뒤에 (km/시속) 시속도 같이 표기해 줬으면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들면 30 m/s 보다는 108 km/h 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정의식위원)	공감합니다. 초속하면 잘 와닿지가 않고 시속 아무래도 와닿는 부분이어서 기상팀에게 이 부분을 시청자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		
보도	연합뉴스TV는 이번 2022년 키아프·프리즈 서울 관련보도를 꾸준히 다루면서 그 의의과 전망 및 향후 과제도 다양하게 제시하는 등 보도의 내용과 깊이에서 크게 돋보였다고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순수예술 분야에도 꾸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갖고 보도해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정경모위원)	아무래도 저희 방송이나 신문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언론들이 문화를 다룰 때 말씀하신 대로 대중문화 쪽에 아무래도 비중이 더 크게 다루고 순수 문화예술 쪽은 좀 비중을 덜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보편적인 관심이 아무래도 대중문화예술에 많이 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에 관심이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또 시청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언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론이 시청자들을 단순히 따라가는 기능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계도 기능도 있는 거니까 순수든 대중이든 다양한 문화 분야를 발전시키고 진흥한다는 차원에서 순수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시청자들이 좀 알기 쉽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순수예술인 K-미술이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대중예술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K-컬처에 상당한 탄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프리즘에서도 이 점 주시하면서 추가로 K-미술의 성과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겠습니다.			
보도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관련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촉구 뉴스 돋보여, 9.19일자 현장의 재구성, 짙어지는 '계획 범죄' 정황...또 막지 못한 스토킹 살해편에서는 사건 전부터 피해자를 쫓은 가해자의 동선을 추적해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 정황을 시청자들에게 고발하고, 무엇보다 사전에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인신구속기회가 3번이나 있었음에도 놓쳐버린 사안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서울교통공사의 허술한 정보접근 관리까지 우리 사회가 가진 허점들을 차분하게 짚어 주며 이번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시청자들에게 제시하였음. 또한 연합뉴스TV에서는 9.18일자 후속 뉴스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계획적인 보복 살인을 낳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해자의 접근 차단 대책과 피해	스토킹 문제는 요즘에만 일어난 문제는 아니겠죠. 말씀하신 대로 흉포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주목을 받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잘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스토킹 범죄를 다룰 때 현상을 다루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이런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현상을 다루는 것도 심각성을 알려준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고 또 이 범죄가 벌어졌을 때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대책 위주로 좀 호흡이 긴 보도도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프리즘이나 스페셜 쪽에서 스토킹에 대한 대책을 집중해서 다루는 보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자 보호 중심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뉴스를 편성해 전달한 것은 시의성 측면에서 바람직했음.(김희중위원)				
보도	BTS 병역특례 논란관련, 전문가 통해 시청자 이해 도와, 9.19일자 이슈+에서는 국회 국방위의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대상 편입과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나와 설명해 줌으로써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접근해 돋였음. 이 밖에도 BTS 병역특례관련 뉴스로 9.20일자 이기식 병무청장 인터뷰 기사, 같은 날 '영상구성' 국방위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결과, 9.18일 국방위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결과, 9.16일 이종섭 국방장관 인터뷰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했다는 점도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여짐.(김희중위원)	뉴스 현장의 이슈 플러스는 이전에 사건 이슈였고 얼마전 개편을 하면서 사건 이외에 다른 이슈들, 이를테면 문화 이슈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도 있고... 좀 넓게 다루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문제도 다뤘던 것입니다.	○		
보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제안 필요, 지난 9월18일 방송되었던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아무도 몰랐던 비극, 복지 사각지대와 빚의 굴레"에서는 수원 세모녀 사건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현황과 되풀이 되는 원인, 정부대책 현황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음.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에 국한하지 않고 숨어살아야 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빚독촉의 문제 및 빈곤의 문제로 확산한 것은 시청자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심층분석 프로그램으로써 매우 적절했다고 판단됨, 복지사각지대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다루어져서 매우 적절했다고 판단되나 해소를 위한 대책 제안에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다루어졌다고 판단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	뉴스프리즘에서 주요 이슈 가운데 심층적으로 보도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검토 해보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개선은 단기적인 처방도 있겠지만 시스템 전반적 개선을 위한 장기적 개선사항도 있기 때문에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그러나 동 방송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간 복지 예산 논쟁을 집중부각시켜 정치적 판단의 문제로 인식시킬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 특히 금년도 예산안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외면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고 여당의 입장은 보도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안에 대한 균형적 시각도 다소 미흡하게 다루어진 측면도 있음, 뉴스프리즘이 심층적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만큼 다양한 전문가 인터뷰, 연구자료 등을 통해 대안 제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예를들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신청절차 개선방안, 기준의 개선방안, 발굴시스템 개선으로 첨단기술 활용방안, 복지제도의 근본적 개선방향, 해외 복지제도와의 비교 등 대책에 대한 제안을 했으면 시청자들에게 더욱 유익했을 것으로 사료됨.(유환익위원)				
보도	<[단독] 31살 전주환 신상공개...피해자 주소지 4차례 방문> 기사 제목 아쉬워, 이번 달에는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9월 19일 보도된 <[단독] 31살 전주환 신상공개...피해자 주소지 4차례 방문> 기사는 보도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연합뉴스TV가 처음 보도하는 내용인지가 불분명해 아쉬웠습니다. 기사 제목을 지금처럼 잡기보다는 <신상공개 된 전주환 피해자 주소지 4차례 방문>이나 신상공개 내용은 빼고 <전주환 피해자 주소지 4차례나 방	단독을 붙이게 된 팩트는 피해자 주소지를 4차례 방문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단독이라고 붙인다면, 단독을 한 팩트를 먼저 써주거나 그 팩트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대로 한다면, 신상공개한 것이 단독처럼 잘못 읽혀지니까요. 기자가 잘못 썼다면, 데스크들이 수정했어야 하는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문>,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독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본문을 확인해보면 역시 신상공개에 관한 얘기가 앞부분에 나오는데 독자들 입장에서는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건지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였습니다.(김세한위원)				
보도	스토킹범죄 관련 심층보도 아쉬워, 앞서 밝혔듯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더불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졌습니다. 때문에 각 언론사에서는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전문가 인터뷰, 좌담회 등 여러 형태의 심층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연합뉴스TV에서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이 같은 심층보도가 다소 부족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1999년 처음 발의됐지만 22년 만인 지난해 4월 겨우 법이 제정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고,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낮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 등 현행법의 문제점이나 수사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문제점 등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대담 형식이나 인터뷰 형식으로 짚어주는 보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김세한위원)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대담은 저희가 9월에 여러차례 진행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		
보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곳곳서 규제완화 '꿈틀" 2022-08-29, 서울시가 각급 학교들의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고 필요하면 견인 조치도 강행하겠다고는 했지만 야간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일부 안전 속도 상향 등 다른 규정은 실제 완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켜가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등교시간인 오전 8시가 넘은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금지 팻말 아래 떡하니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해 봐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인근 상가와 상가의 물품 배달과 택배차량, 일부 학부모들의 차량을 이용한 등·하교 등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됐지만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규제 완화 움직임은 커지고 있습니다.부산과 창원 일부 지역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일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주·정차 시간을 늘려주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를 퇴색시켜선 안된다는 움직임과 동시에 주정차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자치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취지와 다르게 민원인들의 여론으로 법 개정 1년만에 규제의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착잡합니다. (천경숙위원)				